

# “우리 아이가 TV 동화 속 주인공으로…” SK브로드밴드 ‘살아있는 동화’ 서비스 출시



"엄마-아빠도 저랑 같이 동화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나요?"  
"자기 얼굴이 TV에 나와서 그런지 아이들이 집중해서 동화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!"  
SK브로드밴드가 최근 아이들이 TV를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동화를 직접 만들 수 있는 '살아있는 동화' 서비스를 출시했다.  
이에 맞춰 뽀로로파크 잠실 롯데월드점과 일산 킨텍스점, 흥천 대명 오션월드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직접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체험존을 운영한다.

## '살아있는 동화'로 창의력 쑥쑥!

'살아있는 동화'는 3~7세 대상 아이의 얼굴, 목소리, 그림을 담아 나만의 TV 동화책을 만드는 북 서비스다.  
아이의 얼굴을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찍어 TV로 보내면 동화 속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표정이 변하는 '역할놀이', 아이가 그린 그림을 TV 화면 속 동화로 보낼 수 있는 '그리기', 동화 속 주요 문장을 아이의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'말하기' 등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 TV 동화를 즐길 수 있다.  
'살아있는 동화'는 3D 안면인식, 실시간 표정 자동 생성 등의 첨단기술로 동화 속 캐릭터의 얼굴 위치를 정교하게 추적해 3D로 분석한다.  
울고, 웃고, 화나는 등 20가지 이상의 표정이 이야기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한다.  
SK브로드밴드는 '살아있는 동화' 기술 구현을 위해 SK텔레콤의 AR/VR 기술인 T리얼을 적용했다.  
서비스 이용 중에 전화나 문자가 와도 시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.

아이가 잠이 들 시간에는 동화를 영상 없이 오디오로만 들을 수 있고, 아이가 부모 없이도 지속해서 시청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.  
SK브로드밴드는 한솔교육 등 여러 출판사들의 베스트셀러 250여 편을 엄선해 11가지 누리과정 생활주제 및 나이별 단계에 맞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## 올바른 TV 시청습관에 영어공부까지

'살아있는 동화' 출시와 더불어 B tv 홈화면 개편으로 더욱 새로워진 키즈 서비스는 부모에겐 안심을, 아이에게는 재미를 더했다.  
설정 화면에서 아이의 이름과 나이 등 프로필을 미리 등록해놓으면 연령에 맞는 콘텐츠, 이벤트 쿠폰 등을 제공한다.  
"○○○ 친구야! 눈 나빠지니까 뒤로 가서 보자"와 같이 아이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시청 가이드를 해준다.  
뽀로로, 콩순이, 옥토넷 등 캐릭터를 선택하면 해당 캐릭터의 친숙한 음성을 통해 아이의 올바른 TV 시청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.  
유치원 등원, 식사, 외출 등 자녀에게 맞는 알림 시간을 설정하면 TV를 시청하다가도 화면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. 하루에 시청 가능한 콘텐츠 편수도 제한할 수 있다.  
B tv 키즈 독점 서비스인 '영어쑥쑥' 코너를 통해 '마더 구스 클럽', '리틀 팩스' 등 영어권 현지 아이들이 즐겨보는 글로벌 인기 키즈 영어교육 콘텐츠 1천200여 편을 모두 무료로 볼 수 있다.

## 학습 효과도 눈에 띄네!

'살아있는 동화'는 교육 콘텐츠 전문회사 한솔교육과의 제휴를 통해 양질의 동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단순히 보는 동화책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동화책 서비스를 제공한다.  
이 서비스는 역할놀이, 그리기 놀이, 말하기 놀이를 통해 아이가 직접 꾸민 자신의 얼굴이 캐릭터로 나온다. 건국대학교 홍우평 교수가 이끄는 (주)브레인웍스 연구진들은 만 6세 아이들의 안구운동 측정, 표정변화 분석, 뇌파 분석 등을 통해 이 콘텐츠가 실제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했다.  
동화책 시청 시 아이들의 안구운동을 추적한 결과, 안구가 고정되는 시간과 횟수 모두 '살아있는 동화'를 시청할 때 월등히 높았다.  
아이들이 동화를 시청한 후 인터뷰와 표정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, 동화책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가 '살아있는 동화'를 시청했을 때 더 높았고, 행복한 감정도 2배 가까이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. ⑦